



농축산물 시장개방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 —본회 및 양돈, 낙농육우협회 공동으로—

본회를 비롯한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결사반대하며 농민을 위편한 정부의 기만적 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월 12일과 23일 2회에 걸쳐 발표하고 축산 관련 전문지에 게재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I)

현재 우리 축산업은 수입으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의 가중으로 양축가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여 계속적인 축산업의 존속여부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89년 9월말 현재 산지 돼지가격은 전년대비 20%나 하락한 추세가 지속되어 양돈농가가 불황에 허덕이게 하거나 낙농의 경우 소비둔화로 인한 분유체화가 1만2천여톤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전 축산업계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주요 상수원의 오염원인이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가 대부분임에도 마치 축산분뇨가 그 주범인양 단정하여 충분한 사전홍보나 대

비책은 결여된 채 전격적인 구속조치 등 규제행정 위주로 압박하고 있어 축산업은 실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 칼라힐스 대표가 내한하여 쇠고기등 농축산물 전면개방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양축농민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1백5십만 우리 양축농민은 솟구치는 분노를 가가스로 자제하면서 생존권 수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관철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총 매진코자 한다.

다 음

1. 10월 15일 미국을 방문하는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농축산물 수입개방만으로도 우리 축산업이 아사 직전에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여 미국측에 현재 한국에 수출되는 농축산물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수입개방 압력을 전면 중단토록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농축산업이 망하면 국가 경제도 망하고 소비자도 살아갈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안정성이 결여된 외국 농축산물을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3. 미국측은 한국에 대한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전면 철회하라.

성명서(II)

우리나라 축산업은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로 양축농민의 한숨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돼지가격 폭락세 지속과 낙농육우산업의 불안정한 생산기반등 축산업의 위기 상황은 국내 실상을 외면한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시책에 기인하고 있어 수입저지 운동만이 축산업의 안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면 우리 양축농민은 불안과 허탈감만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소값 파동의 참상을 겪은 후 정부는 한결 같이 농민과의 사전대화를 통해 쇠고기등 수입관련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공약하고서도 최근 내한한 미국 무역대표부 칼라힐스 대표의 압력에 굴하여 축산물유통사업단까지 설립하여 추진해 오던 쇠고기 수입 창구를 들인 관광호텔측이 소위 관광호텔용 쇠고기는 직접 수입케 함으로써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광호텔 용을 빙자하여 온갖 부정이 난무했던 지난날의 악몽을

되살리려는 정부처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경험한 대로 농가의 절반이상이 종사하는 낙농 육우산업에 있어 쇠고기 시장잠식등 수입정책으로 인한 불황은 대체 관계에 있는 양돈 및 양계산업의 불황을 유발함을 물론 연관산업 전반의 불황과 경제 사회적 불안 가중 나아가 도농간 격차유발, 빈부의 갈등 심화등 실로 견잡을 수 없는 국면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우리 양축농민은 농민을 외면한 정부의 기만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총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에 약속한 관광호텔 측의 소위 관광호텔용 쇠고기 직접수입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수입쇠고기를 싼값으로 무제한 방출함으로써 야기된 양돈업등 현재의 축산업 불황이 회복될 때까지 수입쇠고기 방출을 즉각 중단하라.
3. 우리 양축농민은 재벌 관광호텔 경영주들의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치부 행위에 경악하면서, 관광호텔 측은 농민 수탈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4. 황폐화되어 가는 오늘의 농촌현실을 국민모두가 이해하고 살리기 위해 수입농축산물 불매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5. 미국은 쇠고기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미국 스스로 반미 감정을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것을 경고한다.

제5회 전국닭고기요리솜씨대회 —최우수상에 닭 늪은호박탕 당선—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한 전국닭고기요리 솜씨대회가 지난 10월 18일(수) 서울시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65명이 참가 703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회장 왕준련)가 주관, 농림수산부(장관 김 식) 후원, (주)부토 페리카나치킨(대표 양희권), 한국 153 유통 처갓집양념통닭(대표 한신일) 협찬으로 실시 본상 6명, 특별상 6명으로 총 12명이 입상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닭고기요리를 조리한 후 닭고기와 대두유에 관해 류태종 박사가 20여분간 강의를 했으며 지난해 최우수상 입상자인 고경영씨가 자신의 입상작품을 강습, 뽀빠이 이상룡씨의 진행으로 행운권 추첨과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65명중 15명은 지방사람들로서 왕복여비가 지급되었고, 입상된 작품에 대해서는 팜프렛으로 제작해 요리강습회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할 예정이다. (관련내용 화보 참조)

비료관리법 개정 건의

—생계분에 비료생산업 허가없이 수분조절제 첨가와 포장판매 가능하도록—

본회는 효과적인 계분처리에 제약을 주고 있는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줄 것을 농림수산부와 환경청에 강력히 건의했다.

폐기물관리법상에는 혐기성 또는 호기성균에 의한 퇴비(비료)화 방법 등으로 계분을 발효 건조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수분조절제(왕겨, 쌀겨, 톱밥 등)의 첨가 이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비료관리법상에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계분에 수분조절제를 첨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분을 발효 건조시켜 가마니, 지대 등에 담아 포장판매하여야만 하나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계분의 포장판매가 불가능하므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업무

를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양계업 경영중 생산되는 생계분의 함수율은 80% 이상이므로 수분조절제를 첨가하지 않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퇴비화 방법 등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자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양계업 경영중 생산되는 계분을 불가피하게 발효 건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결코 비료 생산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고자 한다해도 전 양계인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허가에 따른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와 실정을 창작하여 양계농가(전 축산농가)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농장에서 생산된 계분에 수분조절제를 첨가하여 발효 건조시켜 포장 판매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산법시행규칙중 개령령(안)에 대한 본회 의견 제시

본회는 지난 31일 축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본회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수산부는 중병아리 사육업종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중병아리 사육업종의 건전한 육성 및 수급조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란계용 중병아리(7개월령 이하) 1만수 이상"을 양계업 등록규모인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치를 해왔다.

이에대해 본회는 "산란계용 중병아리(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5개월령 이하) 1만수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병아리가 7개월령 이상이면 산란시기이므로 판매, 이동시 스트레스로 인해 산란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5개월령 이하로 해야 한다. 또한 월령만 표기할 경우 산란계 등록대상자가 병아

리를 육성할 때 산란계와 중병아리를 이중으로 등록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밝혔다.

현행	개정	본회 의견
제1조의 4(축산업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모를 말한다.	제1조의 4(축산업의 범위).....	제1조의 4(축산업의 범위).....
1. 양돈업 : 모든 50두이상	1. 양돈업 : 모든 100두이상	1. 생략
2. 양계업 : 산란계(중계를 제외한다) 3만수 이상 또는 육계(중계를 제외한다) 1만수 이상	2. 양계업 : 산란계(중계를 제외한다) 3만수 이상, 육계(중계를 제외한다) 1만수 이상, 산란계용 중병아리(7개월령이하) 1만수 이상	2. 양계업 : 산란계(중계를 제외한다) 3만수 이상, 육계(중계를 제외한다) 1만수 이상, 산란계용 중병아리(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5개월령 이하) 1만수 이상
(신설)	3. 낙농업 : 젖소 50두이상(숫소를 제외한다)	3. 생략
	이하생략	

'89 제2차 감별분과위원회 -12월 1일 감별사 자격시험 개최기로-

본회는 지난 10월 21일(토) 본회회의실에서 '89년도 제2차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민경두)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별사 해외파견실태 및 수급현황을 검토하고, 오는 12월 1일 영동병아리감별학원에서 '89 제2차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 및 감별사경진대회를 개최기로 결정했다.

특히 참석위원들은 감별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별회원 스스로가 단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급근도 회원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11월 13일 육계인대회 개최키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 10월 정기월례회가 지난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장기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병아리 가격에 대한 집중 토론이 있었다. 병아리 가격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화장들의 담합 인상도 있지만 육계인 스스로가 병아리 가격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고 자성했다. 따라서 육계인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병아리유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회 전국육계인대회를 오는 11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될 이번 전국육계인대회는 세미나와 현안문제 토의, 리셉션 등이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는 예원농장 정용길 사장의 “육계인이 본 미국의 육계산업과 우리의 자세”, 하림식품 김홍국 사장의 “육계계열화사업 현안과 문제점”, 본회 이규성부장의 “계분건조시설 및 계사건축에 관련된 법령 해설”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란부화종계분과위원회

10월 채란부화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신흥종)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채란계 병아리 가격이 성수기철인데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율적으로 가격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덤핑판매를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채란부화업이 육계부화업의 부산물 처럼 취급되며 운영하는 부화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채란부화업이 단일업종으로서 독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채란과 육계부화업의 분리 경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란계사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예정

—11월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본회와 한국가금학회(회장 오세정)은 채란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비 절감의 근원이 되는 채란계사의 설계와 계사환기시설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16일 12시부터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광천농장 김영환 사장의 「채란계사의 설계」, 고창양계 김기경 차장의 「계사환기시설의 개선」에 관한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심포지엄은 계사시설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채란양계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예상된다.

원종계 수입감축조절회의 개최

금년에 과다입식된 원종계수입감축 조절을 위한 회의가 지난 10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원종계 보유업체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원종계의 증가로 육계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나 다소 많은 원종계 물량은 종계선발을 강하게 하므로 품종의 우수성 유지 등 바람직한 면도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 발표와 다소 많은 물량에서 가격을 조절하고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인위적 감축보다 자율적인 조절방안을 모색하고, 종계의 무리한 판매를 자제하여 생산 조절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향후 생산추세를 보면서 원종계 농장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종계생산물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채란분과위원회 겸 채란인 단합대회 개최

—비료관리법 개정 강력히 요청키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 10월 월례회 겸 전국채란양계인 단합대회를 지난 12, 13일 양일간 총

남 동학사 계룡산장에서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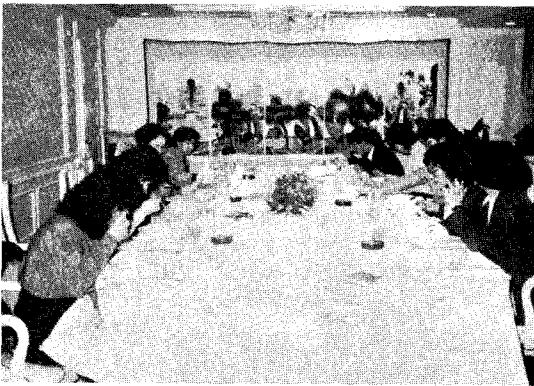
이날 월례회에서는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전용, 계사건축,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해설”에 관해 본회 이규성부장의 세미나가 있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자원 오염문제의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폐수처리에 관해 비료관리법이 계분의 처리와 판매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어 효과적인 계분처리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계농가가 비료판매업 허가 없이도 계분의 처리 문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양계업계의 이익 대변을 위한 본회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지역 계우회가 본회에 가입하기로 했다.

편집자 그룹 간담회 개최

—10월 11일 기자 11명 참석—



본회는 닭고기·계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담당기자(일·주·월간지)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 63B/D 크로바룸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5회 전국닭고기요리솜씨대회 개최 안내
- 2) 닭고기 판매점(튀김집)에서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손님이 갔을 경우 튀겨주고 있는데 보관방법이

비위생적이고 튀김용 기름에도 신뢰감이 없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수 있도록 위생적이었으면 좋겠다.

3) 계란은 등급(중량)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특란만을 구입하고 있는바 어느 크기의 계란이 경제적인 것인지 홍보해 주길 바란다.

4) 닭고기의 부위별 판매가 널리 유통되길 바란다.

〈참가자 명단〉

일련번호	성 명	소 속
1	신정희	매일경제 기자
2	김영신	연합통신 차장
3	조혜련	한국일보 기자
4	원미연	가정신문 기자
5	이영이	동아일보 기자
6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7	엄희자	주부생활 부장
8	임근영	일요뉴스 부장
9	고혜련	중앙일보 기자
10	한온자	한국경제신문사 기자
11	이호경	행복이 가득한 집 기자
계	11명	

육계산업발전협의회 소위원회 개최

—육계계열화생산계약서(안) 검토—

육계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7일 소위원회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본회가 마련한 육계계열화생산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생산자와 계열주체측의 의견수렴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계약사육에 필요한 계약서는 아직 계열화사업 시행초기단계에서 완벽한 안을 만들기관 불가능하므로 연차적 개선을 해가기로 했다.

다음 협의회는 11월 27일 갖기로 결정했다.

전국축산기구협의회 개최

양계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간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한 전국축산기구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지난 10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정보교환을 통해 과당경쟁을 피하고 양계산업에 자동화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양축가에게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시설방안을 권장하고, 국제화시대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하자고 인식을 같이 했다.

2차회의는 11월 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갖기로 하고 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에 박호일(제일양계기구), 오병석(일일축산), 진달만(성광산업), 양창욱(다나축산기계), 오서근(삼원축산)씨 등 5명이 위임되었다.

제6회 이천축산인 체육대회

본회 이천육계분회(분회장 김동재) 및 이천산란계분회(분회장 전병훈)는 지난 10월 24일(화) 이천공설운동장에서 회원 및 축산관련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이천축산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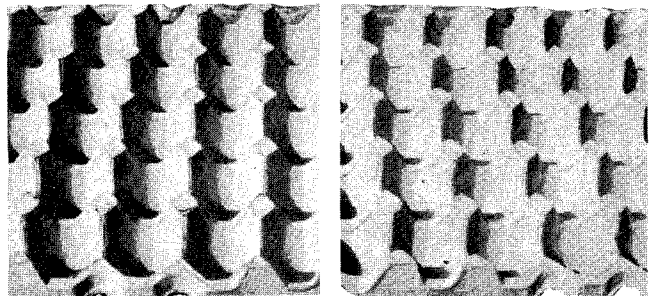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계주, 줄다리기 등 3개 종목에 걸쳐 다양한 경기를 벌였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회원부부가 다수 참석하여 양계인 가족 단합대회의 성격이 짙었으며 회원 및 주위 축산관련인들에게 닭고기 바베큐를 마련, 닭고기소비 홍보행사도 곁들여 가졌다.

종이난좌 를 사용하시면 달걀의 위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규격 종이난좌의 특징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예방
4. 파란방지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제일성형공업사

공 장 : (0351) 63 - 7363 · 7097

연락처 : (02) 549 - 5287